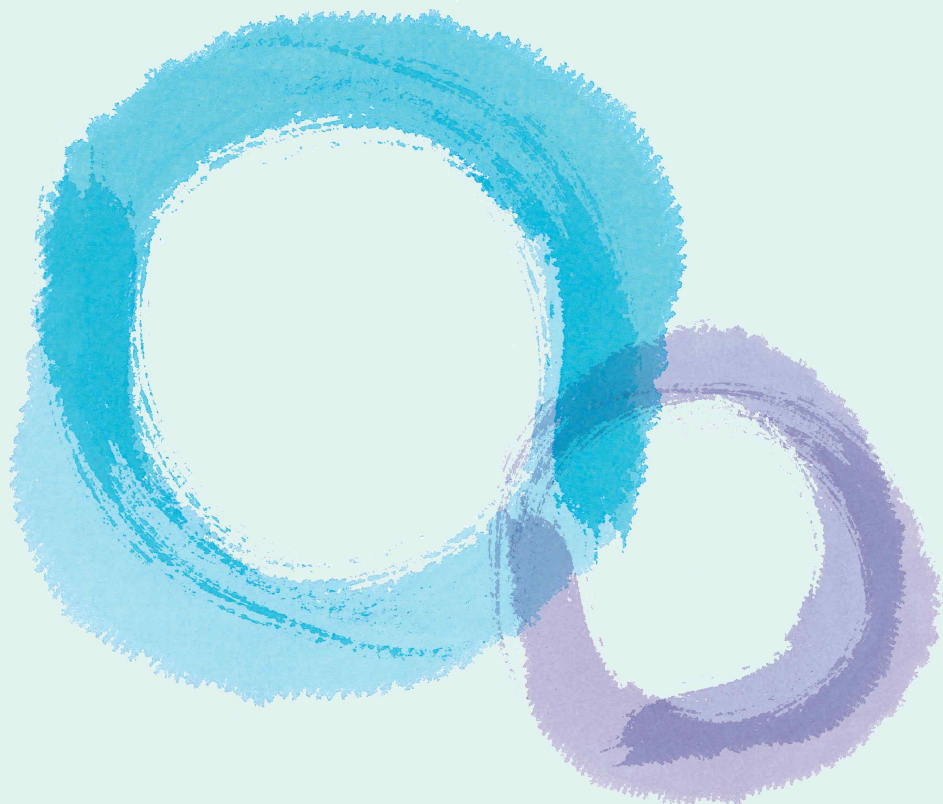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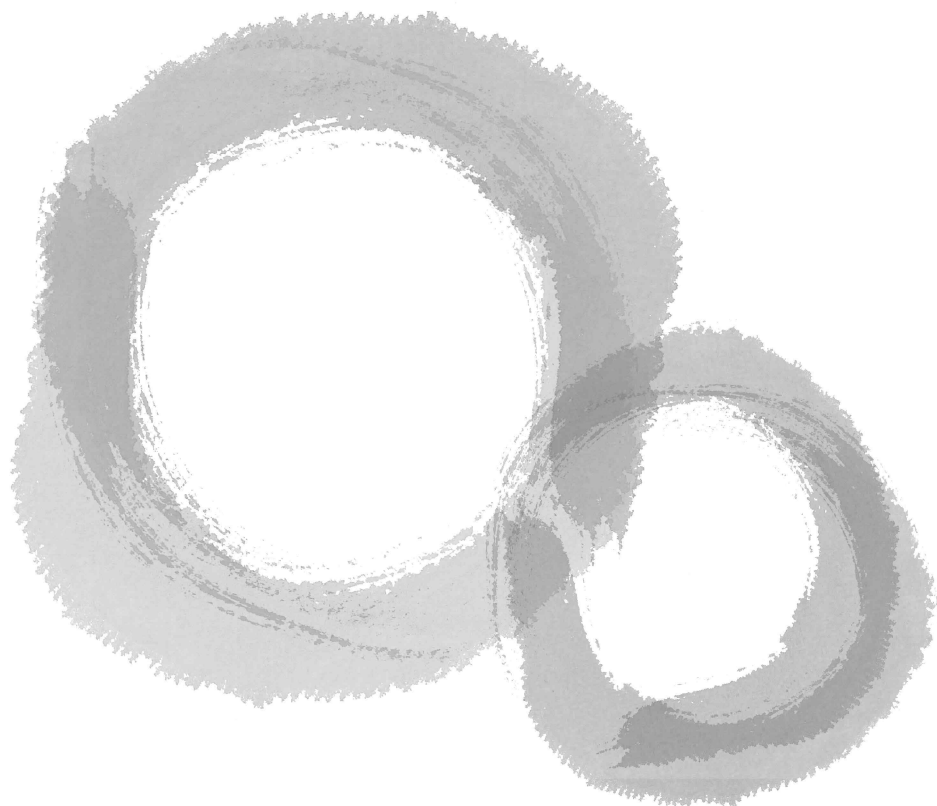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외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01-21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선임연구위원	최은영 부연구위원 유해미 부연구위원 최윤경 부연구위원 남상보 인턴연구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
기반 조성 방안”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육 아 정 책 연 구 소
소 장 이 영

요 약

본 연구는 창조경제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영유아가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및 지역사회 내의 문화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인재의 특성은 창의성과 융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인지적인 능력과 이해력, 논리력이 그 기반이 되며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감능력은 융합이다. 이러한 창의인재 양성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창조경제의 바탕이다.

창의성을 사회적 맥락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뒷받침될 때 더욱 잘 발휘되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유아기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으로 문화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 공간에서는 교과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이 가능하고, 개별적 관심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문화 공간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은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핸즈온 활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느끼고, 창작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는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창의놀이터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을 통해 영유아의 창의성 계발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창의성 계발을 위한 어린이 박물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박물관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시물을 통해 그 자체로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습자인 영유아가 중심이 되어 자유로운 선택과 핸즈온 활동을 강조하며 가족들이 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박물관의 공간이 주는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해 활동이 창의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 도서관은 책을 통해 영유아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영유아기에 습득한 독서의 즐거움은 오래도록 책을 사랑하고, 책을 통해 사고하는 사람을 성장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창의성을 계발시킨다.

실외놀이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대소근육을 발달시키고 기본 지식을 학습하게 함과 동시에 보다 풍부한 정서적 관계의 경험과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창의놀이터는 자유, 모험, 실험, 위험감수 등 아동의 기본적인 발달과 탐색, 확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유아들에게 미지의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모험적인 것에 대해 도전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기 창의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각 기관별 특성들을 토대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특성상 문화기반은 거주지에 근접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 인프라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설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별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운영관리 규정에 있어 철저해야 하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유아의 욕구와 흥미를 끌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일회성 프로그램은 심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없으므로 창의성 계발에 있어 연속성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대상 문화 기반 신규 시설 및 기존 활용 계획에 따라 영유아 담당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 대상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문화예술교육사, 어린이사서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영유아를 위한 문화기반 시설과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기관은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요구된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상상력과 도전 정신의 기회를 풍부하게 마련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인프라가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chiefly with respect to nurturing creativity in the framework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to preparing community-based cultural infrastructures. Creativity, which is built on the basis of the human-specific cognitive abilities and the reason, and integration, which is regarding the empathetic ability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others, are the essential factors emphasized in the creative economy. The creative economy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along with the society where these characteristics are well cultivated.

As cultivation of creativity rests crucially on the social context and early childhood itself is the most prolific period of creativity development, providing stimulating of environment of creativity especially at the early stage of life appears significantly essential.

All sorts of the cultural space can be the places that provide children with a variety of experiences and activities and with the opportunity to maximize each individual's interest. Furthermore, direct experience such as hands-on activities has been proved to be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In order to develop creativity of children, it is highly required to structure social contents including creativity-stimulating cultural spaces for young children such as children's museum, children's library, and creative playground with comprehensive approach.

Firstly, Children's Museum, functioning as the creativity stimulator with its full range of exhibitions, provides cultural and historical hands-on experiences. Children

are freely allowed to choose what they want to experience with their families and its allowing atmosphere makes the activities more creative and flexible.

Secondly, Children's library makes children cultivate their imagination and grow to be ones who enjoy reading and reflect it on their lives with thoughtful consideration of what they read. Such experience in early childhood lasts for a long time and gives huge influence.

Thirdly, Outdoor play promotes the child's holistic growth and development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hysical activities and gross/fine motor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and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Creative playground satisfies children's needs for development and exploration with adventurous, risk-taking, challenging and creative experiences.

With thorough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such cultural structures above, suggestions can be made as follows.

First,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it can be drawn that the cultural spaces should be located close to the residential areas. Currently, overall the accessibility of cultural infrastructures is quite low, and there are severe regional disparities. Therefore more systematic infrastructure expansion plans should be made.

Second, because the main target of these cultural spaces is young children, management regulations and co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equipped with under thorough consideration.

Thir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ofessional programs for young children are required. As the most current programs are one-off ones so there are difficulties to improve further. Therefore, age-appropriate programs that can nurture creativity in young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nd need to be provided continuously.

Fourth, the curriculum is required to train early childhood workforces such as

cultural art educators, librarians, and such.

Finally, instead of operating independently, cultural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hould be closely related so as to make efficient cooper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creative economy, the environmental context of children's early life including homes, schools, and communities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to foster imagination and challenge spirit, and this can be achieved by making cultural infrastructures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s everyday life.

목 차

요 약	1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 2 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4
1. 연구 내용	14
2. 연구 방법	15
제 2 장 영유아의 창의성과 문화기반	16
제 1 절 창조경제에서의 창의인재 양성	16
제 2 절 영유아기와 창의성	17
제 3 절 영유아기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화기반	19
1. 창의성 계발과 어린이 박물관의 역할	20
2. 창의성 계발과 어린이 도서관의 역할	21
3. 창의성 계발과 어린이 창의놀이터의 역할	21
제 3 장 영유아 문화기반 현황 및 우수사례	23
제 1 절 어린이 박물관 현황 및 우수 사례	23
1. 어린이 박물관 설치·운영 현황	23
2. 어린이 박물관 우수 사례	26
제 2 절 어린이 도서관 현황 및 우수 사례	29
1. 어린이 도서관 설치·운영 현황	29
2. 어린이 도서관 우수 사례	34

제 3 절	어린이 창의놀이터 현황 및 우수 사례	37
1.	어린이 창의놀이터 설치·운영 현황	37
2.	어린이 창의놀이터 우수 사례	42
제 4 장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44
제 1 절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방향	44
제 2 절	서비스 접근성 강화	45
제 3 절	기관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정비	46
제 4 절	영유아에게 적합한 시설 설치	47
제 5 절	담당 인력의 양성·배치 및 전문성 강화	48
제 6 절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49
참고문헌	50

표 목 차

〈표 3-1〉 시·도별 어린이 박물관 설치 현황(2011. 12. 31)	24
〈표 3-2〉 어린이 도서관의 유형	30
〈표 3-3〉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관련 기준	31
〈표 3-4〉 국내외 공통 어린이 도서관 공간 요소	33
〈표 3-5〉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장소 및 소관 법령	38
〈표 3-6〉 전국 어린이 놀이터 설치 현황	41

그 립 목 차

[그림 2-1]	창의성 체계 모델	19
[그림 2-2]	박물관 교육의 특징과 창의·인성 요소	20
[그림 3-1]	미국의 Toddler Farm	27
[그림 3-2]	프랑스의 Cité des enfants	28
[그림 3-3]	조부모와 책 읽기	35
[그림 3-4]	가족장소도서관	36
[그림 3-5]	런던의 모험 놀이터	42
[그림 3-6]	동경 후지 유치원 놀이터	4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사회 다방면에 걸쳐 창의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래 예측이 보다 어려워져 사회적 위험이 한층 가속화되고, 과열 경쟁 사회에서 창의성이란 ‘궁극적인 경제 자원(Florida, 2004)이며, 더욱 복잡해지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요건(Plucker, Beghetto, and Dow, 2004; Runco, 2004)’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핵심 국정과제로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창조적 지식을 우리 경제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전 산업에 걸친 접목과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3. 3). 이때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은 자율성과 창의성이며, 획일성 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주된 요소 중 하나는 ‘창의적인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인재는 ‘창의적인 성향’, ‘경험의 재구성’, ‘훈련된 기능’, 그리고 ‘창의성 관련 지식’의 복합체로서, 창의적 인재는 이들 네 가지 영역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시공간에서 양성된다(임선하, 2012).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창의성이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 능력,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이 중요하며, 이들 다양한 요소들이 수렴되는 통합적 관점을 강조한다. 또한 Csikszentmihalyi(2007)는 창의성을 소문자 ‘c’와 대문자 ‘C’로 나누면서 소문자 ‘c’는 인식될 필요 없이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창의성이며 대문자 ‘C’는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창의성이라고 하였

다(강재희, 2008에서 재인용). 이들 지적은 개인이 발휘하는 창의성은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뒷받침될 때 더욱 잘 발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창의적 능력을 인정하고 촉진해주는 가정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한편 창의성 차원에서 사회 환경의 중요성은 특히 유아기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서, 영유아의 창의성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직접적인 체험과 창의력, 그리고 예술적인 능력을 존중하는 환경은 영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다(설희정, 2008). 이는 영유아의 창의성 계발은 단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창의성 발현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했을 때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지님을 말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영유아기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일상적인 환경으로는 문화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 공간에서는 교과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이 가능하고, 개별적 관심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문화 공간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기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현황을 분석한 후, 세부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수요가 높고, 창의성 계발 측면에서 주요 효과를 지닌 대표적인 문화기반 시설, 즉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창의놀이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 2 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창의성에 대한 개념화와 영유아기 창의성 계발 차원에서 문화기반의 중요성을 다루고, 각 문화기반 시설과 창의성 계발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둘째, 대표적인 영유아 문화기반 시설 즉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창의놀이터의 전국 지역 인프라 수준과 운영 현황 및 한계점을 파악한다.

셋째, 각 문화기반 시설별로 국내외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모색한다.

넷째, 각 문화기반 시설들의 현황과 우수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향후 영유아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방향을 설정한 후, 문화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문헌연구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제1추진전략인 창조경제와 창조경제를 위한 창의인재 육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창의인재 육성 차원에서 영유아기 창의성의 중요성과 영유아기 창의성 계발과 문화기반 시설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 사례조사

영유아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외국의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어린이 박물관, 창의놀이터,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운영관련 사항을 분석하였다.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창의성 관련 학계 전문가와, 어린이 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의 현장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유아기 창의성 계발의 정책적 접근 방법과, 문화기반 시설 운영 현황 및 개선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 2 장 영유아의 창의성과 문화기반

제 1 절 창조경제에서의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인재의 특징은 크게 창의력과 융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창의력의 경우 컴퓨터나 기계로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 고유의 인지적인 능력, 이해력과 논리력이 그 기반이 되며, 융합이란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과 공감능력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력 발달을 뒷받침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 시장의 여건을 변화시키고 타 분야와의 교류나 융합이 가능하도록 보편적인 지적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창조경제 종합연구 시리즈2, 한국개발연구원).

특히 교육 환경 및 여건 발전을 통해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이룬 시기부터 전방위 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때 일괄적인 교육 매뉴얼이나 지도 내용물을 배포하는 것은 오히려 창의성 개발을 저해할 수 있고, 창의력 시범학교 선정과 같은 정부 사업의 추진은 단기적 목표 달성 및 경쟁을 요구하는 특성상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조벽, 2011). 대신 지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일상생활에 관련된 서비스를 체화하고 이를 가치화하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다양성, 창의, 문화, 확장 등의 개념들을 강조하며 다양한 창작과 예술성을 높이는 ‘문화예술영역’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생애주기별로 적합하고 다양한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발전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자원과 인프라,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각각이 가지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역 브랜드의 중복과 콘텐츠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융합적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창조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 고유지원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기술기획전문가 양성 및 역할 강화, 자체 R&D 예산 규모 증대, 관련 부서의 신설,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기반 문화발전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민의 문화활동 및 향유를 지원할 수 있고, 부차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창조경제 종합연구 시리즈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 2 절 영유아기와 창의성

창의성은 다양하고 독특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해 주는 창의적 성향이 합해진 것으로, 이는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영유아기는 지적 발달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에 있어서도 가장 민감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생의 여러 시기 가운데 영유아기는 인간의 창의성 발현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전경원(2000)에 의하면 유아기가 창의적인 사고의 원동력이 되는 상상력이 매우 뛰어난 시기이고,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또한 영유아기의 창의성은 유아의 개인적 소질 이외에 주변의 심리적·물리적 환경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자들(Balkin, 1990; Gardner, 1983)은 창의성은 유아기의 자율적이고 풍부한 환경에서 촉진되므로 비교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자발적으로 표현되는 유아기에 창의성을 발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Gardner(1983)는 각 개인은 뛰어난 창의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영역이 있으므로 유치원 시기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흥미를 발견하고 그와 관련하여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개인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유아기 때부터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적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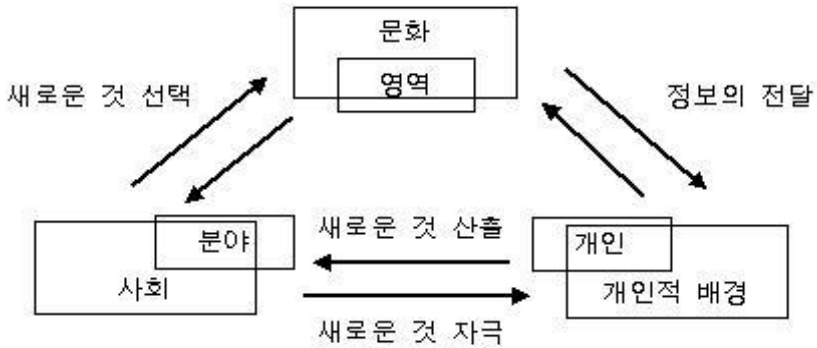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생애초기인 유아기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은 표준보육과정이나 유치원교육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5세 누리과정’의 도입, 그리고 2013년부터 확대·시행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기의 창의·인성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창의성은 지능과 마찬가지로 성인이거나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달하며, 한 개인의 행동과 발달에 끊임없는 영향을 주는 환경은 일반적으로 가정 환경, 사회 환경, 학교 환경으로 대별되며 이들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전인적 발달에 중점을 둔 우리의 교육 전통에서는 영유아기의 교육이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의적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도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실제적인 성취를 위해 영유아 교육과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에 주목하고 있다(임선하, 2013). 2013년에 전면 도입된 3~5세 누리과정에서는 전인 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는 2011년 「창의·인성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영유아기 창의성은 그 자체로서보다는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기본적 인간의 능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 부분을 이루게 된다(윤숙현, 2010). 영유아가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창의성 계발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가정, 기관, 지역사회를 토대로 문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창의성 체계 모델



자료: Csikszentmihalyi(1999). p.315.

제 3 절 영유아기 창의성 계발을 위한 문화기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Torrance(1963)에 따르면 영유아의 창의성은 지속하여 증가하다가 만 5세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초등학교 취학 시에 필요한 사회적응과 타협, 사회적 권위에 대한 수용 등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정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경화, 2013, 재인용).

Urban(1991)에 의하면 이와 같은 창의성 슬럼프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서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동이 다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학교 규칙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이 될수록 창의성은 감퇴된다는 연구결과(Shoumakova & Stetsenko, 1993; Heller, 1994) 역시 획일적인 교육 환경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창의성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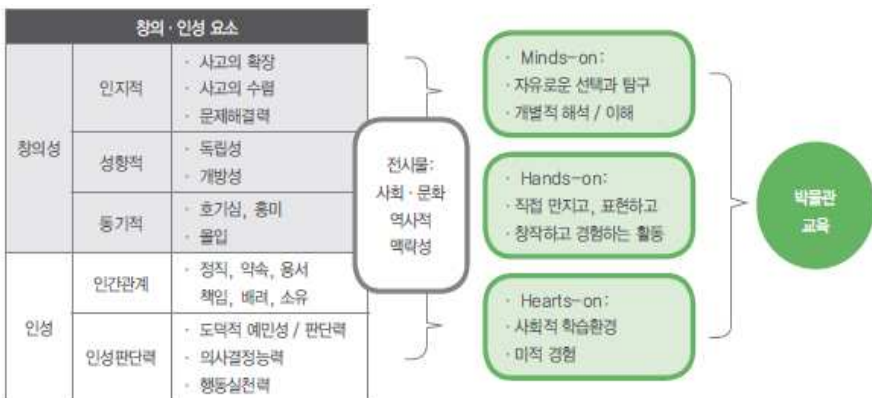
따라서 영유아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체험활동과 핸드온(hands-on)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직접적으로 만지고 표현하고 느끼고 창작하는 핸드온 활동은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

위기 속에서 발달에 적합한 자극물로 이루어진 문화기반을 토대로 한다. 대표적으로는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창의놀이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시설을 통한 창의성 계발을 위해서는 다학제간 접근을 통한 공간 구성과 콘텐츠가 요구된다.

1. 창의성 계발과 어린이 박물관의 역할

박물관이 창의성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는 이유는 비형식적 교육에서 작동하는 내적 원리와 창의성 교육의 원리가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언급된다(임선하, 2012). 구체적으로 박물관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등 기관 교육과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강인애, 2012).

[그림 2-2] 박물관 교육의 특징과 창의·인성 요소



자료: 강인애(2012). 박물관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 인성 함양 가능성 탐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p.22.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전시물을 통해 그 자체로써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므로 아동의 개별적 관심에 보다 부합하는 활동이 펼쳐질 수

있다. 셋째, 체험활동 또는 hands-on 활동을 강조한다. 즉 직접 만지고 느끼고 창작하는 활동을 통한 인지 활동에 초점을 둔다. 넷째, 가족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공간이 주는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로 인해 모든 활동이 창의적으로 구성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박물관 교육의 특징인 3 On's(Hands-on, Minds-on, Hearts-on)은 창의적 요소와 직결된다([그림 2-2] 참조).

2. 창의성 계발과 어린이 도서관의 역할

영유아기의 뇌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기들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는 일은 언어습득과 독서 능력 발달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IFLA, 2007).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을 주관하는 대뇌 전두엽은 책읽기를 통해 발달하며, 태어나자마자 책을 읽어준 아기들을 10년 넘게 추적 조사하였을 때 언어, 인지 및 수학능력 발달이 눈에 띄게 우수하였다(고선주, 2012). 책을 통한 직간접적인 체험은 영유아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영유아기에 습득한 독서의 즐거움은 오래도록 책을 사랑하고, 책을 통해 사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한다(이연승·박향원, 2007). 또한 영유아가 많이 접하는 그림책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흥미진진한 환상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 유아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김수영·김경미, 2006).

3. 창의성 계발과 어린이 창의놀이터의 역할

실외놀이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실외 환경은 실내보다 유아의 상징놀이에 큰 영향을 미치며(Frost, 1997), 실외에서 갖는 흥미와 상상적인 욕구가 주변을 탐색하도록 하는 자유로움을 느끼도록 한다(신동주, 1994). 또한 실외놀이터는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 대소근육을 발달시키고 기본 지식을 학습하게 함과 동시에(김진희, 2009), 보다 풍부한 정

서적 관계의 경험과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실외놀이터는 자유, 모험, 실험, 위험감수 등 아동의 기본적인 발달과 탐색, 확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유아들에게 미지의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모험적인 것에 대해 도전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Johnson, Christie & Wardle, 2005, 김진희, 2009 재인용), 미래 세대로서 외부 세계에의 탐험과 도전, 기존 사회문화적 틀의 변화를 꾀하는 영유아기 창의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 박물관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자유선택 학습을 제공하고, 어린이 도서관은 다채로운 그림책과 비도서 자료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창의놀이터는 성인 주도적 교육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탐색과 체험, 그리고 환경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기 창의성 계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 3 장 영유아 문화기반 현황 및 우수사례

영유아를 위한 대표적인 지역사회 문화기반 시설인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창의놀이터의 설치·운영 현황과 우수 사례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어린이 박물관 현황 및 우수 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 어린이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10개관에 불과하며, 주로 초등학생이나 중고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어린이 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설비 요건 및 운영관련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1. 어린이 박물관 설치·운영 현황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 대상 교육과 전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립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을 설치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실의 설치가 조금씩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영유아와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박물관은 1995년 삼성어린이집의 설립을 시작으로, 1998년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에 이어 주로 2005년과 2006년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후 설립이 둔화되어 2011년 12월말 기준 현재 약 19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공히 5개관, 다음으로 인천 지역이 2개관, 부산 지역 등은 각 1개관에 불과하며, 울산, 대전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표 3-1〉 참조).

설치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국립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이 사립보다 많다. 국립박물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내 어린이 박물관과 같이 각 도별로 국립박물관에 소속된 경우가 많으며, 공립 기관으로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 유일하다.

〈표 3-1〉 시·도별 어린이 박물관 설치 현황(2011. 12. 31)

순번	지역	시설명	설립 구분 1	설립 구분 2	개관년도
1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	소속	2003
2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	소속	2005
3	서울	삼성어린이 박물관 ¹⁾	사립	독립	1995
4	서울	롤링볼 어린이 박물관	사립	독립	2006
5	서울	헬로우뮤지엄	사립	독립	2007
6	경기	경기도어린이 박물관	공립	독립	2011
7	경기	아해어린이 박물관	사립	독립	2011
8	경기	캐니박물관	사립	독립	2005
9	경기	딸기가 좋아	사립	독립	2004
10	경기	국립과천과학관 어린이관	국립	소속	2008
11	인천	인천어린이 박물관	사립	독립	2005
12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체험학습실	국립	소속	2006
13	경북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	소속	2005
14	광주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	소속	2006
15	충남	국립부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	소속	—
16	충북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국립	소속	1998
17	경남	국립김해박물관 체험학습실	국립	소속	2006
18	전남	국립전주박물관 터치뮤지엄	국립	소속	2006
19	부산	티오비오	사립	독립	20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내부자료; 국성하(2010).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의 설립과 변화에 관한 고찰. p.5 재구성.

1) 삼성어린이 박물관은 2013년 5월 ‘서울 상상나라’로 새롭게 개관할 예정임.

어린이 박물관은 각 기관별로 고유의 설립 철학과 목적을 표명하고 있으나, 주로 체험형 전시 공간을 추구하며 어린이를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고 역사, 과학,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제 교육 공간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 박물관의 전시는 어린이들이 실제 유물, 자료를 전시를 통해 보거나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어린이를 위한 과학, 미술, 음악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 역사, 과학 등 특정 영역을 주 내용으로 전시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인천어린이 박물관은 전시물을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식(hands-on) 박물관을 표방한다. 지구촌문화탐구, 과학탐구, 교구놀이, 공통탐험 등 다양한 영역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시장을 비롯하여 입체영상관, 미술체험실 및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고 어린이가 스스로 사고하며 오감을 사용해 느끼고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는(minds-on) 체험교육 공간을 제공한다.²⁾

한편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어린이 박물관은 미술, 역사, 민속, 과학 등 해당 분야가 다양하다. 미술 영역의 헬로우 뮤지엄은 상설 전시가 아니라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특별 전시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은 1층 전시를 보고 2층 아트랩(Art Lab)에서 전시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하며, 미술에 대해 알아간다(헬로우 뮤지엄, 2010). 또한 역사, 민속 영역 전시로는 국립청주박물관을 들 수 있는데, 문화재 발굴을 체험하는 모래속의 유물찾기, 발굴의 도구들, 직지 등 지역 문화 유산의 우수성을 알게 하는 즐거운 유물 여행, 옛 선조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체험학습실 등으로 구성된다. 과학 영역으로 국립과천과학관 어린이관에서는 에너지 만들기, 수로 만들기,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내부 등을 탐험하는 신기한 스쿨버스 등이 운영된다. 그러나 이들 전시는 자료가 모형 등으로 이루어져

2) 인천어린이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enjoymuseum.org> 참조

있고, 전시 대상 연령 구분이 없어 박물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단지 체험 공간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성하, 2010: 84).

어린이 박물관은 앞서 살펴본 전시와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형 전시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물관으로는 삼성어린이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내 어린이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내 어린이 박물관, 인천어린이 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박물관은 전시와 연계하여 간단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범주화하여 상설교육으로 운영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인 삼성어린이 박물관은 매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며, 국립민속박물관내 어린이 박물관 등은 어린이·가족, 소외계층·다문화 가정, 학교 연계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단기간, 일회적 교육이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국성하, 2010: 89). 또한 박물관에서 실시 중인 체험활동은 기관(학교)과 박물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미비하며 구비된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입증도 어렵다고 언급된다(박상혜, 2012: 37).

2. 어린이 박물관 우수 사례

가. 미국 사례

미국 어린이 박물관 112곳 중 약 40% 이상(46곳)이 영아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신동주·박진성, 2010). 이들 공간이 제공하고 있는 유아체험교육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아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공간은 미끄럼틀 등과 같은 놀이기구가 있는 대근육 영역, 부모와 함께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언어 영역, 그리고 감각과 소근육을 사용하여 조작 탐색할 수 있는 탐색 영역 등으로 구성한다. 나아가 가정과 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가정과 기관에서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듣거나 연계 활동을 유발함으

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영아를 위한 공간을 특정 주제로 구성한 박물관도 설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Michigan주 Curious Kids' Museum(St. Joseph 소재)의 경우 ‘Toddler Farm’이라는 전시체험 공간을 1940년대 미시건의 농장을 재현하여 구성하여 영아들이 헛간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달걀을 주우며 놀 수 있으며, 손 펌프로 물을 끌어 올리는 경험을 하는 등 다양한 농장 경험을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림 3-1〕 미국의 Toddler Farm



자료: www.curiouskidsmuseum.org

이들 영아를 위한 공간에는 부모들이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부모들에게 영아를 위한 전시공간에서 어떻게 놀아야 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전시관을 방문한 후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물관 내에서 영아와 부모를 돕기 위한 전문담당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미국내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미네소타어린이 박물관의 경우, 2012년 432,246명의 관람객들에게 1,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32,500시간 이상을 봉사하였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이 어린이 박물관운영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경희, 2013).

나. 프랑스 사례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을 직접 체험하면서 원리를 알아가도록 한 프랑스의 라 씨떼 씨앙스는 프랑스의 명물로 프랑스가 기초과학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36명이나 배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고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어진 라 씨떼 씨앙스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라 씨떼 씨앙스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연령대에 따라 각기 다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씨떼 데 앙팡(Cité des enfants)’이다. 2~7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험관은 물, 바람, 소리, 빛과 같이 자연과 연관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www.Cité-sciences.fr/fr/Cité-des-sciences).

〔그림 3-2〕 프랑스의 Cité des enfants



출처: www.Cite-sciences.fr/fr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하며, 실물자료를 직접 보고 이를 체험하게 하는 영유아 대상 박물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시사점

앞서 살펴본 사례에 의하면, 다음의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영아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별도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즉 영아들은 유아와는 명백히 다른 발달상의 특징을 지니므로 별도의 공간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별도 기관을 설치할 경우는 특정 주제로 구성한 시설을 모색한다.

둘째, 영유아의 특성상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영아를 위한 별도 공간의 마련 시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셋째, 영유아를 위한 전문 담당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례에 의하면, 영유아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영유아의 경우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때 전문 인력의 배치 및 활용은 담당 실무진과 자원봉사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2 절 어린이 도서관 현황 및 우수 사례

최근 도서관은 자료 보존과 제공의 기능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박선희, 2010). 이에 따라 국내외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영유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위한 규정이 모호하고, 해당 프로그램들은 주로 교육과 독서 기법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영아가 배제되는 등 창의성 계발 차원에서 한계를 지닌다.

1. 어린이 도서관 설치·운영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최근에 들어서 확대되었

는데, 서울시립 어린이 도서관이 1979년에 처음으로 개관한 이후로 2003년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로 인해 어린이 도서관의 건립이 촉진되었다(유정은·김명순, 2007). ‘공공 어린이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 열람실과는 달리, 「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의미한다(장운금, 2010). 따라서 어린이 전용이 아니라 전 연령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내 어린이실과 각종 작은 도서관 등은 영유아 대상 도서, 프로그램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영유아를 위한 문화 기반 시설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3-2〉 어린이 도서관의 유형

운영주체 \ 규모	공공도서관 규모	분관(문고) 규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공립어린이 도서관 － 기적의도서관	－ 공립어린이문고
개인 및 단체	－ 사립어린이 도서관	－ 사립어린이문고 － 인표 어린이 도서관

자료: 문지현·김정현(2008), 국내 어린이 도서관의 현황 및 분류표 적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도서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어린이 도서관은 2013년 현재 83개관이다. 어린이 도서관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광역시 위주로 설치된 경향이 있어 그 외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우려된다(유해미 외, 2012).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어린이 도서관의 설치 수준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대부분 지역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므로, 어린이 도서관의 인프라 수준은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어린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모호하여 영유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3-3〉의 한

국도서관기준에 나타난 어린이서비스 관련 기준을 보면, 해당 기준이 “적절하다” 혹은 “바람직하다” 등의 제안 형식으로 제시되어 실질적인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된다(장윤금, 2010). 또한 김종성(2008)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기준에 포함된 어린이 서비스 관련 내용이 어린이 서비스의 기본 이념이나 원리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원칙과 도서관 현장의 어린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표 3-3〉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관련 기준

☐ 공공도서관의 목적

-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흥미의 개발과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조직

- 공공도서관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아동봉사를 전담하는 독립 부서를 두어야 한다.
-

☐ 자료구성 및 기준

- 공공도서관의 성인용 자료 대 아동용 자료의 구성 비율은 70~75% 대 25~30% 정도가 적절하다.
-

☐ 시설기준

- 아동을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자공간의 1좌석당 면적은 아동자료실은 $1.89m^2$ (유아용은 $1.5m^2$, 시각장애인용은 $2.3m^2$)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열람 및 학습, 연구에 필요한 시설: 개가제 종합자료실(또는 코너), 아동자료실(또는 코너), 청소년자료실(또는 코너). 이 중 아동자료실과 청소년자료실의 경우 소도서관과 분관은 코너 형태로,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은 독립된 실로 구성하여 성인용 공간과 구분하도록 하고, 특히 아동자료실의 경우는 코너 형태라 하더라도 성인열람공간과 입구를 달리하도록 하며, 대도서관은 30인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30\sim40m^2$ 크기의 독립된 이야기방을 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 예산

- 공공도서관의 아동용 자료의 구입비는 전체자료비의 10% 이상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 10~20%는 낡은 자료의 교체비용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이용자봉사—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봉사

- 공공도서관은 아동전담 사서를 배치하되 특히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저·중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 시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예·작문·드라마·미술·음악·인터넷활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식과 상상력의 산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며, 창의력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아동과 부모에게 도서관 이용법, 자료이용법, 인터넷 정보검색법 등을 가르치고, 독서지도와 독서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직원구성, 개관시간, 시설, 봉사, 자료에 관하여 지역사회와의 학교 및 학교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자료: 한국도서관기준(안). 2003년판(공공도서관 하위 영역 어린이서비스 부분 재정리).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이용 대상 측면에서 어린이 도서관은 대개 초등학생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가 이용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IFLA(2007)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유아를 위한 장서와 서비스를 구축할 때는 품질이 우수하고 연령에 적합하며 안전하고 너무 어렵지 않으며 부모와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독서를 장려하고, 읽었을 때 만족스러운 자료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영유아에게는 특히 그림책이 중요한데, 그림책은 아이와 어른 간에 재미있고 함께 하는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동 발달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를 위한 책은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재질과 촉감이 다른 여러 종류의 종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어린이 도서관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화구연이나, 놀이 및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교육과 독서 기법 등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홍현진 외 2009). 이는 어린이 도서관의 대

부분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영아보다 유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취학전 유아들의 ‘독서 훈련’이 강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영유아의 도서관 이용은 ‘의미 파악’과 학습을 위한 독서가 아니라, 어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스토리 위주’로 이루어져서 상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의 공간 구성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영유아를 위한 공간은 1층에 배치하고, 아동 열람실은 위층에 배치하거나, 어린이 도서관 내부에 쓰이는 가구나 페인트 등을 무독성·친환경 물질로 사용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공간을 나누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변형 가능한 칸막이를 배치하는 등 공간의 안전성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의 내용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 국내 어린이 도서관의 내부 공간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도서관 건축의 어린이 공간으로서의 배려와 아동친화적인 디자인의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크고, 어린이를 위한 차별화된 출입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물에 쓰이는 입구와 창고의 크기 및 배치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선, 2013). 또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도서관 공간 요소로는 다음이 제시된다(〈표 3-4〉 참조).

〈표 3-4〉 국내외 공통 어린이 도서관 공간 요소

요소	
공간요소	공간구성, 공간규모, 공간동선, 공간밀도, 공간배치, 공간성격, 공간용도, 공간접근성, 공간배색, 공간연출, 공간유무, 공간종류, 공간형태, 공간가변성, 공간분위기, 공간완성도, 공간위험요소제거
가구요소	서가기능, 서가높이, 서가모양, 서가배치, 서가색채, 서가소재, 서가활용, 서가종류, 서가크기
	책상안전처리, 책상모양, 책상배치, 책상색채, 책상용도, 책상종류, 책상크기, 책상소재, 책상활용
	의자안전처리, 의자모양, 의자배치, 의자종류, 의자크기, 의자소재, 의자관리, 의자활용

요소	
시설요소	검색대유무, 검색대종류, 방충창, 창문안전처리, 안전유리사용, 사물함유무, 사물함기능, 전용시설, 조형물유무, 출입문소재, 자가대출반납기, 출입문안전처리, 무대유무, 신발장유무, 이중창, 전용화장실
마감재요소	천장높이, 천장색채, 천장디자인, 천장안전장치, 천장활용, 바닥내구성, 바닥단차, 바닥색채, 바닥활용, 벽기능, 바닥소재, 바닥안전처리, 바닥위생, 바닥마감재, 벽이미지, 벽활용, 벽배색, 벽마감재, 벽안전처리
기타요소	계단높이, 계단넓이, 계단경사도, 계단재질, 계단난간, 계단안전처리, 데스크위치, 데스크기능, 데스크소통, 데스크형태, 소음조절, 온도조절, 정보시스템, 사인유무, 소품구비, 채광활용, 조도기준, 조명관리, 통로폭, 커튼소재, 향온시스템, 흡습시스템, 환풍시스템

자료: 강미희 · 홍현진(2012), 어린이 도서관 공간요소의 중요도 평가.

이외에도 현행 어린이 도서관은 사서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사서에게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대개 열람실 담당으로서의 역량이 강조되는데, 어린이 도서관의 사서는 도서관에 장서를 구비하는 수서 능력이 각별히 요구된다.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부족이 야기하는 문제로 인터넷 서점에서 제목만으로 도서를 보충하는 등 장서 질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담당 사서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전문성 유지의 어려움도 있다(김종성 · 김은옥, 2010).

2. 어린이 도서관 우수 사례

우선 미국 사례에 의하면 1988년부터 ‘조부모와 책 읽기(Grandparents and Book-Adults & Children Reading Together)’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방과후 돌봐주는 양육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조부모와 책읽기(GAB)’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이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책을 읽도록 마련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이다.

〔그림 3-3〕 조부모와 책 읽기



자료: www.lapl.org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장소도서관(Family Place Library)’은 영유아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성장, 인지발달, 리터러시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인 동시에 그 부모인 성인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된다(이용재, 2011). ‘가족장소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1979년에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센터리치(Centereach) 소재 미들컨트리도서관(Middle Country Public Library)에서 개발되었다. ‘가족장소도서관’의 주요 구성요소는 장서, 특별히 고안된 환영 장소, 부모·어린이 워크숍, 외부 기관과의 협력, 새로운 이용자에 대한 아웃리치, 연령별 인지발달 프로그램, 어린이사서 등이다.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서 각종 사회서비스 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4〕 가족장소도서관



자료: <http://www.familyplacelibraries.org>

다음으로 프랑스의 공공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열람 책상과 의자를 많이 두지 않으며, 도서관에는 책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장난감을 구비하여, 자연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놀면서 공부하기”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자연친화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유아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있다(홍현진 외, 2009).

이들 사례에 의하면, 영유아를 위한 지원 인력으로 조부모를 활용하거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 사례에서와 같이 영유아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책상과 의자 배치를 최소화하고, 도서 이외에도 장난감을 함께 구비하는 등 다양한 활용 자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어린이 창의놀이터 현황 및 우수 사례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국 설치 현황이 파악된 바가 없어 지역적 불균형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양한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고 주로 안전관리 위주여서 영유아 창의성 개발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중심의 영유아 창의성 발달을 주제로 마련한 창의놀이터의 사례는 긍정적인 시사점을 갖는다.

1. 어린이 창의놀이터 설치·운영 현황

가. 어린이 놀이터 관련 규정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의해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린이 공원으로 규정되어 있어(현은자 외, 2009), 어린이 놀이터는 놀이터와 공원이 포괄된 개념이다. 놀이터는 <표 3-5>에서 제시된 대로 어린이 놀이기구³⁾가 설치된 다양한 장소와 관련 법률에 근거한다.

3) 어린이 놀이터 분류에 기준이 되는 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조합놀이대,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타 놀이기구가 해당됨.

정부는 2008년 1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어린이 놀이기구의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모든 놀이터로 하여금 2012년 1월까지 설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바 있다.⁴⁾ 그러나 음식점내 어린이공간이나 ‘키즈카페’와 같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놀이기구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사실상의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수 존재한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 사고는 안전점검체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 영리사업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램펄린과 같이 어린이의 놀이기구로서의 수요는 많으나 법 체계에서 놀이기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점검 기준과 대상에서 빠져있는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므로,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로서의 놀이터에 대한 규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3-5〉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장소 및 소관 법령

• 주택단지(「주택법」 제2조제4호)
•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
•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 휴게시설(「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제5호)
•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1항)
•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2010년 12월 기준 검사를 마친 놀이터는 36%로 나타남(행정안전부, 2011,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 재인용)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실내외 놀이실이 놀이터의 개념으로 시설 설비 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에 실외놀이터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어 사실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보육 정원 50명 미만과 어린이집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그리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2005년 1월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놀이터 설치 의무 조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011. 6. 7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실외놀이터 설치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수의 증가에 비해 어린이집 옥외놀이터의 증가는 정체되어 있다.

가장 많은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간소화 및 자율화 개편(2012. 9. 25 공청회)에 따라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던 것에서 벗어나 입주인 수요에 맞게 주민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량 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면 되도록 개정되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내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집에는 안전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구만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단지내 놀이터와 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성 품질인증의 도입은 고무적이나, 주민복리시설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한 개정에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터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어,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아파트 건설 허가 시점에 치중된 놀이터 시설설비 설치 및 안전관리 검사를 준공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 어린이 놀이터 설치 현황

1) 장소별 설치 현황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 놀이터는 총 55,860개로, 아파트 등 주택단지 놀이터가 44.8%(25,037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 어린이집 15.5%(8,643개), 유치원 12.3%(6,832개), 공원 12.2%(6,769개), 학교 11.3%(6,28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1). 현은자 외(2009) 연구에 의하면 관련법규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과 영유아기관에서의 설치 증가로 어린이 놀이터는 전반적인 증가세로 추정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내 놀이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2004년 기준 30.9%에서 2009년 42.2%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어린이집 기관 규모에 따라 놀이터 설치 비율이 달라,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설치율이 2009년 기준 78.0%로, 20명 이하(14.0%), 21~40명 미만(36.6%)보다 높다(유희정 외, 2009, pp.80~81). 김은영 외(2009) 연구에 의하면, 2009년 자체 놀이터가 없는 비율이 유치원 5.8%, 어린이집 32.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인가기준에 의하면 정원 50인 이상 기관에서는 자체 놀이터를 소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50~100인 미만 규모에서 24.7%, 100인 이상에서도 6.3%가 자체놀이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자체놀이터가 없는 경우는 아파트 공동주택 놀이터를 활용하거나(35.8%),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근 공용놀이터를 이용(27.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외, 2009).

장소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살펴본 결과, 기관특성 및 설치기준의 차이에 따라 영유아의 실내외 놀이터 이용에 차이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 놀이공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또한 장소유형별로 공동 주택단지내에 놀이터가 가장 많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공원 위주의 놀이터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으로서의 놀이터 설치와 관리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지역별 설치 현황

전국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기준 경기도가 22.9%(12,784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8%(8,853개), 경상남도 7.7%(4,383개), 경상북도 5.7%(3,179개), 부산 5.4%(3,001개) 순으로 나타나(행정안전부, 2011,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 재인용), 대체로 영유아 인구가 많은 순으로 나타나나, 지역에 따라 놀

이터 설치율의 편차가 큰 편이다.

〈표 3-6〉 전국 어린이 놀이터 설치 현황

지역	건수(%)	지역	건수(%)
경기도	12,784(22.9)	대구광역시	2,765(4.9)
서울특별시	8,853(15.8)	강원도	2,537(4.5)
경상남도	4,283(7.7)	충청남도	2,392(4.3)
경상북도	3,179(5.7)	충청북도	2,030(3.6)
부산광역시	3,001(5.4)	광주광역시	1,959(3.5)
인천광역시	2,772(5.0)	대전광역시	1,626(2.9)
전라남도	2,772(5.0)	울산광역시	1,319(2.4)
전라북도	2,768(4.9)	제주도	820(1.5)
총계 55,860(100.0)			

자료: 행정안전부, 2010. 12기준(한국소비자보호원, 2011 재인용)

다. 어린이 창의놀이터 설치 추진 경과 및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이후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유아 창의성 개발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문화재단에서 2005년부터 추진한 ‘문화가 있는 놀이터’가 있다. 이는 어린이 놀이터를 지역주민간 소통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사업 목표를 지닌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 2006년부터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친환경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도 있다. 이는 기존의 낡고 위험한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 공간 및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한국토지공사, 2009, 현은자 외, 2009 재인용). 이 역시 지역의 주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친환경 조성과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기획된 점이 특징적이다.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중에 ‘상상어린이 공원’이 있다. 단조롭고 노후한 기존 어린이 공원 시설을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하에 어린이의 창의력과 상상력, 꿈을 키워주는 테마놀

이공원이자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재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08~2010년까지 추진된 바 있다(서울시, 2008, 현은자 외, 2009 재인용). 이처럼 어린이 공원 및 주거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창의놀이터가 증가하는 추세로, 영유아 창의성 발달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 창의놀이터 우수 사례

해외에는 다양한 창의놀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런던의 모험 놀이터(LAPA)는 유아들이 복잡한 도시 속의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이다(이진희·손원경·안효진·유연옥, 2006).

〔그림 3-5〕 런던의 모험 놀이터



자료: <http://www.londonplay.org.uk>

모험 놀이터는 모아 놓은 수많은 재료, 정원, 도구와 하드웨어, 주된 건물과 화장실, 구성놀이 영역, 유아들이 요리할 수 있는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간 구

성의 다양성과 운용에 있어 영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는 환경 구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음으로 유치원내 창의놀이터 우수 사례로는 자연의 지형지물을 활용한 일본 동경의 후지 유치원을 들 수 있는데, 이 곳의 건축은 “유치원이야말로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거대한 놀이터여야 한다”(OECD, 2011)는 명목 아래 고목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 속에서 창의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6] 동경 후지 유치원 놀이터



출처: <http://www.oecd.org/edu/facilities/compendiumlaunch>

이들 사례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는 다양한 재료와 영역을 포괄하며, 놀이공간의 설치가 기존의 놀이터 환경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설계로 고안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조형물과 공간의 재탄생을 통해 영유아가 자유로이 다채로운 감각과 창의력의 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사례에서와 같이 자연친화적 놀이터로 기존 자연 환경을 보존하되 고목과 숲 등의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변화를 주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는 놀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제 4 장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각 기관별 현황과 우수 사례들을 토대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방향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영유아 문화지표 개발을 시작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영유아 문화 인프라의 질 평가, 사회·경제적 정책 영향 평가 등이 있다.

첫째, 영유아 문화지표 개발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영유아의 교육과 문화에 관한 인프라의 양 평정 지표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영유아 발달을 위한 교육·문화 서비스의 질 평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분석이 요구되며, 영유아의 문화지수 산출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알 수 있다.

둘째, 영유아에게 적합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전문적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연령별 내용 개발, 일회성 프로그램에서 탈피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영유아 프로그램의 대중적인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영유아 문화 인프라에 관한 질 평가를 통해 거주지에서의 접근성, 설치율 제고,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에 관한 평가 및 개선안의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정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시간적, 재정적 이익/불이익을 평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의 산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영유아의 사회·문화·교육·복지적 측면에서의 효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2 절 서비스 접근성 강화

영유아의 특성상 영유아 문화기반은 거주지에 근접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접근성 강화는 일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문화 인프라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고,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설치율이 낮은 지역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박물관은 서울, 경기 지역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영유아 인구 대비 시설의 수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크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확충 계획이 요구된다. 새로운 시설의 설치 계획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우선적으로 기존의 국공립 박물관 내에 어린이 박물관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국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박물관 진흥 시책’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국립박물관은 30개관, 공립박물관은 312개관에 달하므로 해당 기관 소속 하에 어린이 박물관을 설치할 경우 인프라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독립 기관의 설치도 모색되어야 하므로 지역간 접근성 격차를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도서관은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독립기관의 설치 이외에도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인프라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013년 4월말 기준으로 83개에 달하는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 내에 영유아 대상의 도서관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 놀이터는 설치 확대에 앞서 전국 규모의 인구 대비 이용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놀이터에 대한 면밀한 수요를 파악하고, 놀이터 유형별 설치 요구 지역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의적인 공간 배치와 놀

이기구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구성의 놀이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의 자율화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3 절 기관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정비

각 기관별로 영유아 대상 기관의 운영관리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어린이 박물관은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 아직 없으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은 도서관법 2조에 의해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연령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83개의 공공 어린이 도서관 가운데 31개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시에 관련 절차 등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위탁 운영 도서관의 선정 및 운영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되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장윤금, 2010).

어린이 창의놀이터는 현재 어린이 놀이터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 및 주요 기능에 따라 주택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학교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영유아의 창의성 계발을 도모하는 수준의 창의놀이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창의놀이터의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제 4 절 영유아에게 적합한 시설 설치

영유아들에게 놀이를 통한 박물관은 절실히 요구되나, 우리나라의 어린이 박물관은 이들을 위한 공간의 별도 설치가 미흡하여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그 대상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며,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은 1회성 체험이거나 단편적 놀이 형태가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고, 유아의 욕구, 흥미, 강점이 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각 연령별 교육 및 보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하며, 기존 프로그램이 주로 일회성으로 운영되다보니 심화 수준에 달하는 경우가 미흡하다고 지적되므로 연속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창의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는 만 10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로 규정되나, 이용자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로 확대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과 함께 지역사회 소통과 교류의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인주도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영유아 자신의 자유로운 탐색과 체험,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 창의성과 적응력을 도모하는 곳이므로, 적합한 놀이시설의 배치 및 공간의 구성과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환경의 설계가 필요함과 동시에,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공원을 포괄한 개념이므로 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 소통하는 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겸비할 필요가 있다.

출생 후 1년은 정신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로, 소리, 리듬, 색, 감촉 같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외국의 어린이 도서관 중에는 갓난아기에 게도 “베이비 랩-시트(baby lap-sit)” 프로그램(아기를 부모 무릎에 앉혀 놓고 이야기나 노래 등을 들려주면서 노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김수연,

2010).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조차 최소 대상 연령이 24개월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장서 분류 기준과 배치 방식에 있어서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서 확보에 있어서도 순수하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이나, 비디오, 오디오 자료 등 비도서 자료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제5 절 담당 인력의 양성·배치 및 전문성 강화

영유아 대상 문화 기반 신규 시설 및 기존 시설 활용 계획에 따라 영유아 담당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대상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문화예술교육사, 어린이사서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의 인력은 대부분 박물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그로 인해 전시 개방도 외부 인력에 의존하며 장기간 전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창적인 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요구된다.

또한 유아 대상 체험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서의 체험은 유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이나 보다 의미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교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따라서 어린이 박물관내 전시장마다 교육담당자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유아가 자유롭게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거나, 어린이 사서 및 책 읽어주는 도우미 등을 양성·배치하도록 한다.

제 6 절 영유아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영유아를 위한 문화기반 시설과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기관은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요구된다. 2007년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유아교육기관과 박물관의 유아 대상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의 확대 등으로 기관 이용 아동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정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육아지원기관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실현되도록 한다.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가정과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상상력과 도전 정신의 기회를 풍부하게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 중심의 관심에 그치고 있으므로, 문화적 인프라가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으로 고루 확충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미희·홍현진(2012), 어린이 도서관 공간요소의 중요도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19-243.
- 강인애(2012), 박물관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 인성 함양 가능성 탐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국립민속박물관.
- 고선주(2012), 어린이 책읽기 북돋우기 7개국 사례. 문화예술교육연구. 7(4), 195-218.
- 곽아정·박현주·조화연(2009), 국공립박물관의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20), 25-46.
- 교육부(2011), 창의 인성교육 추진계획.
- 국성하(2010), 우리나라 어린이 박물관의 설립과 변화에 관한 고찰. 어린이 박물관 연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3호. 국립민속박물관.
- 국토부(20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 자료(2012. 9. 25).
- 김수연(2010), 공공도서관의 영아 대상 서비스와 북스타트의 관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333-352.
- 김지선(2011),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현황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2009), 어린이 놀이터의 유아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0(1), 99-117.
- 김종성(2008),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기본 원리에 관한 연구: 국내외 어린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137-159.
- 김종성·김은옥(2010), 공공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장서구성의 영향요인 변화와

-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그림책 장서 평가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15(2), 139-172.
- 류진순(2003),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실외 상상놀이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박상혜(2012), 박물관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푸른도시국(2008),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4.
- 신동주·박진성(2010), 어린이 박물관의 유아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4(1), 47-48.
- 유해미·양미선·송신영(2012),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윤강호(2011), 국제안전규정에 의한 어린이 놀이터 안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선(2013), 지속가능한 어린이 도서관의 계획수법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1), 93-106.
- 이경희(201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 토론편. 제2차 창조경제 종합토론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용재(2011),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마케팅 전략: 미국 공공도서관의 ‘가족 장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417-440.
- 임선하(2012),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 전략. 제1회 어린이민속박물관 학술대회. 국립민속박물관.
- 장윤금(2010), 공공어린이 도서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199-215.
- 최목화·변혜령(2006), 영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터 실태와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5(4), 271-286.
- 최혜영(2011), 유아교육기관과 연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한국문화재단(2009), www.sfac.or.kr에서 인출.

한국소비자보호원(2011),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 안전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 보호원 안전보고서(2011. 6).

한국토지공사(2009), www.lplus.or.kr에서 인출.

헬로우 뮤지엄(2010), 헬로우 뮤지엄 브로셔.

현은자 · 고선주 · 오연주(2009),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기관: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기관. 아동학회지 30(6), 139-151.

홍현진 · 김미희 · 정미봉 · 정대근(2009),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위한 도서관 실태조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53-90.

환경부(2012. 9), 2009~2011년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 조사 자료.

Johnson, J. E., & Christie, J. E., & Wardle, F.(2006), 놀이, 발달과 유아교육(이진희, 손원경, 안효진, 유연옥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원서 2005 출판).

OECD(2011). <http://www.oecd.org/site/educleconf>에서 인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전체 과제 리스트〉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01-01	ICT 기반의 융합산업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01-02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혁신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3-01-03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01-04	창조경제 기반의 농업·농촌 신성장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1-05	창의적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성장동력 육성전략	산업연구원
13-01-06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융합형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3-01-07	창의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3-01-08	에너지 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13-01-09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1-10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창조경제 구현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13-01-1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추 도시권 발전과 도시재생 융합 방안	국토연구원
13-01-12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 발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3-01-13	해양수산 창조경제 구현 과제와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01-14	기술－문화－산업의 융합행정을 위한 정책(부처)간 협력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3-01-15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융합촉진 법제 및 규제 선진화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3-01-16	창조, 융합, 안전을 지향하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도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01-17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3-01-18	기업가적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3-01-19	여성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1-20	기업가적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융합형 직업교육훈련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01-21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13-01-22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 평가 패러다임 전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01-23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01-24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학혁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3-01-25	신흥경제권과의 새로운 산업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01-26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통일연구원

● 저 자 소 개 ●

이 미 화

- 연세대학교 아동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석사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 현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유 해 미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학사
- 고려대학교 사회학 석사
-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 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지원연구팀장

남 상 보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 학사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 석사
- 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인턴

최 은 영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석사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학 박사
- 현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장

최 윤 경

- 서울대학교 소비자이동학 학사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석사
- 미시간주립대 아동발달 박사
- 현 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통계팀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3-01-21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2013년 6월 25일 인쇄

2013년 6월 25일 발행

발행인 박진근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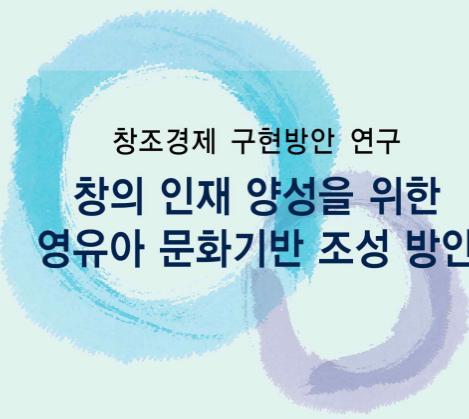
TEL: 02-571-0002 FAX: 02-572-4092

인쇄인 성문화

ISBN 979-11-85196-12-1 94320

ISBN 979-11-950021-1-5 (세트)

〈비매품〉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유아 문화기반 조성 방안

비매품



9 791185 196121

ISBN 979-11-85196-12-1
ISBN 979-11-950021-1-5 (세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7-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2호
www.nrcs.re.kr